

수정영 부부관계의 변화

각테일

한

자음

건네다

# 고은주

소설집 《각테일 슈가》낸 소설가 고은주

지고지순한 사랑? 막차 타고 떠난 지 오래다. 결혼? 누군가 말했듯 미친 짓이다. 고은주(36) 씨의 소설집 《각테일 슈가》는 사랑과 결혼에 대해 그렇듯 발칙하게 대답한다. 불륜과 치정의 서사가 난무하지만 독자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알팍한 트릭은 아니다. 등단 이후 십 년 만에 내는 첫 소설집이라는 사실은, 순정 없는 시대에 대한 작가의 치열한 고민을 증명한다. 소설집에 담긴 여덟 편의 중·단편을 발표하는 동안, 고씨는 《아름다운 여름》《여자의 계절》《현기증》《유리바다》 등의 장편으로 '우리 시대 사랑과 성의 풍속도'를 바지런히 밝혀 왔다.

“장편만을 쓰겠다고 고집한 것은 아닙니다. 꼭 쓰고 싶었던 작품이 단편이란 그릇에 담기에 적절치 않았을 뿐이지요. 생의 한 단면을 밀도 있게 보여주는 양식이 단편인 만큼, 아름답고 애뜻한 얘기보다 부조리한 사랑의 면면을 집요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각테일 슈가》에서 비정상적인 부부관계는 빈번히 등장한다. 〈조각무늬 그림〉〈너의 목소리〉〈떠오르는 섬〉 등 대개의 작품은 “불륜은 누려볼 만한 결혼제도의 특별한 잉여물”이라 속살거린다. 관심을 끄는 작품은 불륜남과 불륜녀가 숫제 손에



손을 잡고 원무(圓舞)를 추는 표제작 〈카테일 슈가〉. 커피에 녹여 먹는 막대사탕, 곧 '카테일 슈가'가 여러 관계를 옮겨다니다 그것을 처음 건넨 여자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건네고 건네받는 관계는 불륜의 연쇄고리. 그들은 '카테일 슈가'를 전할 때마다 무슨 주문처럼 "이거, 모양이 느낌표를 닮았지? 느낌표의 달콤함만 즐겨 봐. 심각한 물음표는 만들지 말고"라는 말을 상대에게 전한다.

"결혼이란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오늘의 세대를 비판해 본 것이지요. 〈카테일 슈가〉 마지막 대목에서 남편과 놀아난 상대라 오해를 한 여자가 카테일 슈가 막대로 친구의 눈을 찌릅니다. 내조 잘 하는 여자 없을까, 돈 잘 버는 남자 없을까, 하고 달콤한 망상만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죠. 달콤한 설탕이 녹은 카테일 슈가의 막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불륜과 치정이라는 솔깃한 서사가 쾌락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쾌락이라니. 그것들에 시종 시니컬한 고씨의 태도가 되레 지독하다 싶다. 고씨는 그런 만큼 스무 살 '유리'의 파행을 그린 연작 〈유리〉 〈너, 유리〉도 가볍게 보아서는 곤란하다고 말한다. 섹스비디오와 스니프필름에 몸을 던지는 '유리'를 통해 IMF 환란 시절, 경제와 더불어 쓰러진 성의 관계를 밝혀 보인 것. 그 시절 상처 입은 것은 어른만이 아니었다. 전 망 없는 생을 나름의 방식으로 견뎌야 했던 아이들이 있었다. 고씨는 "당대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소설가의 자세"라고 말한다.

고씨의 당대 읽기는 당대 기계문명에 대한 꼼꼼한 묘사로 값을 더한다. 작품 속에서 인물들이 기계문명에 갖는 애정은 유별나다. 〈너, 유리〉에서 K프로덕션 사장인 '그'는 컴퓨터와 비디오에 관련된 기계들을 보물처럼 어루만지며, 〈조각무늬 그림〉의 '나'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모자이크 그림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너의 목소리〉에서 40년 동안 움츠리며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나'는 어떻게든 운전면허만을 따보려 노력한다. 인간의 체온을 기계에 불어넣고, 그것을 느끼려 하는 인물들의 몸짓이 안쓰럽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가시적인 것이 기계문명이라면, 비가시적인 것은 사랑과 성, 결혼 같은 것입니다. 거대담론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주목하게 되었지요. 불륜이 사회문제가 된 것도 사랑과 성, 결혼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 까닭입니다. 디지털 기계문명은 그런 우리를 철저히 잠식했지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옮겨갈 수 있는 자리는 기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닌 기계를 통해 위무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요."

앞서 밝혔듯 〈카테일 슈가〉는 십 년 만에 내는 고씨의 첫 소설집

이다. 때로 PC통신이, 호출기가 등장해 고색한 느낌도 들지만, 그것은 책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읽히기도 한다. 하룻밤 사이에 메뉴얼 작업을 다시 해야 할 만큼 기계문명의 발전은 눈부실지언정, 십 년 전 메뉴얼로도 작동되는 우리 시대 사랑의 담보를 소설집은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인 정체성의 위기를 담은 〈저기 내가 걸어간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작고한 문학평론가 이성욱 씨는 '현대문명의 급소를 노려보는 작가'라고 평해 주었지요. 앞으로 제 소설의 주제도 그것이 될 것입니다. 결혼과 사랑도 문명의 한 부분이니만큼 계속 노려봐야 할 소설적 주제이지요."

한편 고씨의 작업이 의미를 갖는 것은, 통속적인 서사를 통속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힘에 있다. "갓고 싶다, 훔쳐서라도 갓고 싶다"라는 통속적인 진술이 반복되는 전작(前作) 장편 〈유리 바다〉에서 고씨는 '갓고 싶다'는 욕망의 메커니즘을 날날이 밝혀내며 문학적 역량을 과시했다. 구성의 묘미가 특별한 〈카테일 슈가〉, 청각에 관한 고급한 사유를 들려주는 〈너의 목소리〉, 떠오름과 가리앉음의 대비로 삶을 진단하는 〈잠들고 싶다〉에서도 그 힘은 지속된다.

"예술적인 발전만 생각하는 우리 소설이 독자를 잃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유리 바다〉를 쓸 때 대중소설을 한번 써 봐, 하고 호기도 부렸었지요. 그런데 대중소설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더군요. 행복을 말하면 행복에 대해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이면에 숨은 무엇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별 때문에 사랑도 아픔답고, 죽음 때문에 인생도 아름다운 법이지요. 그런 것 다 읊기다보니 처음에 생각했던 대중소설과는 멀어졌지요.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고 중간에 머물기란 힘든 법입니다. 어렵지만 그 지점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달콤한데 삶은 왜 씁쓸할까? 답변이 궁색한 독자에게 〈카테일 슈가〉를 권한다. 달콤함에 가려 씁쓸하다 느꼈을 뿐, 삶은 애초에 담백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시니컬하지는 말일, 조금쯤 뼈뺏하게 선 고씨가 우리를 대신해 오늘도 세상의 급소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다. **출판**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카테일 슈가〉 고은주 지음 | 문이당 | 302쪽 | 값 9,000원